

바다에 투영된 인간의 탐욕

July 26, 2017 | 전지현 기자

바다에 투영된 인간의 탐욕

국제갤러리 '그리디드 커런츠' 展

슬라이드 프로젝션 80장을 넘길수록 지중해 사진에 구멍이 들어간다. 결국에 바다 이미지는 사라지고 빛만 남는다.

아르헨티나 작가 루노 라고마르시노(40)의 미디어아트 '바다 문법'은 지중해를 불안하고 구멍 난 공간으로 해석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 난민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중해는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 증가한 대규모 난민들이 목숨을 거는 해역이 돼왔다.

라고마르시노 외에 작가 3명이 서울 국제갤러리2관 그룹전 '격자에 갇힌 바다(Gridded Currents)'에 참여하고 있다. 아르코미술관장을 역임한 김현진 큐레이터가 김아영 작가(38)와 싱가포르 출신 찰스 립이용(44), 스웨덴 출신 니나 카넬(38) 등의 작품 15점을 모았다. 제국주의 식민역사와 국경,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바다에 접근하는 영상과 설치 작업, 오브제 등을 선보인다.

카넬은 바다에 매설된 케이블 플리스 틱 피복 물질을 덩어리째 전시장 바닥에 놓았다. 프랑스 리옹과 서울 근교에서 수집한 재활용 케이블이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은 갈수록 선이 없는(wireless) 상태를 지향하지만 바다에서는 오히려



김아영 작가의 벽화 '깊은 애도(Grand Deuil)'. 대홍수를 모티브로 한 중세시대 그림. 파리국립 오페라극장 이미지가 콜라주된 작품이다.

케이블이 증가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지적한다.

국가대표 요트선수 출신 립이용은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가 간척사업에 잠식당하는 것을 포착한다. 영화, 사진, 그림 등으로 구성한 설치 작품 '해황(SEA STATE)' 시리즈 5점은 바다와 정치, 인간의 관계를 파고들었다.

김아영은 파리 국립오페라극장 팔레 가르니에 지하 공간을 작품 '이 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에 담았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배경이 된 이곳은 19세기 재정 시대에 설립됐으며 지하수가 모여

호수를 이뤘다. 극장은 물 위에 떠 있는 듯하며 극장 곳곳에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석유 가공물)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들었다.

김 작가는 "마치 파리 중심부에 오페라극장이 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여러 곳에서 벌어진 배와 관련된 재난과 침몰을 돌아볼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바다를 통해 수탈한 석유와 관련된 역청의 역사를 노래하고 지휘하는 손을 보여주는 비디오 '무한 반복의 역청 지휘'도 선보인다. 전시는 8월 20일까지.

전지현 기자